

## 영장없이 법인카드 조회 선관위·광주은행 무혐의 광주지검 "합법적인 범위 내 확인"

광주시의회 부의장인 서모(44)의 법인카드(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불법 조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시 선관위와 광주은행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의회 부의장 서모 의원이 사용한 법인카드 거래 자료를 불법 조회했다. 광주시의회로부터 고발당한 광주시 선관위와 광주은행 관계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 없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법인카드의 불법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시의회 부의장의 카드 사용 내역을 은행에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선관위와 은행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시선관위 직원 2명이 법원의 영장 없이 광주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모 의원이 사용한 법인카드 거래 자료를 요청하고 은행 관계자가 자료를 제공한 것은 금융실명제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선관위와 광주은행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광주지검은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 5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시의회 법인카드로 대금을 지불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서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서 의원이 시의회 법인카드를 회사 직원들의 식사대금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개인돈으로 대금을 지불한 점이 인정됐다"며 "산가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학교앞에서 여대생 납치·성폭행

### 경찰, 유전자 분석...수사 나서

여대생이 심야시간 자신의 학교 앞에서 괴한 2명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새벽 0시50분경 광주 B대학 앞에서 이 학교 1학년 A(여·19)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대로 보이는 2명에게 납치돼 성폭행 당했다.

A씨는 경찰에서 "친구 집에서 놀다가 택시를 타고 학교 앞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납치 한 명이 뒤에서 달려들어 얼굴을 때린 뒤 인근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납치 지문과 정맥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했다.

/이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 친환경농산물 급식 시범운영 영산포초등학교 가 보니...

# 식재료 60가지 중 22가지만 '친환경'

나주 영산포초등학교 김주리(6년) 양은 친환경농산물로 꾸집한 점심 시간이 기다려진다. 김 양은 정부미로 만든 밥 냄새 때문에 급식을 싫어했지만 이제는 식판을 깨끗이 비운다. 나주 반남에서 생산된 쌀과 현미 등으로 지은 밥과 유기농 감자로 만든 감자햄볶음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지난 2일 12시, 오전 수업에 마친 병설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630여 명의 학생들은 5분 간격으로 급식을 먹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며 앞줄에 공지된 친환경농산물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날 주식은 차조밥(저농약 농산물), 부식으로 순두부찌개·감자햄볶음(친환경 유기농산물)과 돈육장 메추리알 조림·청포묵두나물무침·배추



지난 3월 친환경농산물급식 시범학교로 지정된 나주 영산포초등학교의 점심시간. 식재료 구입비 지원액이 태부족, 전체 50~60가지 중 22가지만 나주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나주=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100% 바꾸면 재료비 5배 비싸 정부지원 1인 420원...엄두 못내

김치가 나왔다.

7살 유치원생 하영이와 민서는 돈육장 메추리알 조림에 밥 한 그릇을 똑딱 해치웠고, 이미경(여·4년)양과 나재업(5년)군은 순두부찌개에 밥을 말아 김치를 놓아가며 맛있게 점심을 먹었다. 나 군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한 음식을 먹으니 건강해지는 것 같다"며 "어려 가지 종류가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지

난 3월부터 좋은 식재료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3개교를 친환경농산물 급식시범학교로 지정했고, 영산포초등은 도·농 친환경농산물 급식시범학교로 선정됐다.

학교 급식의 재료 구입비는 대개 1천470원(학부모 부담금 1천50원)으로 시·군 지원비 420원은 농협에서 현물로 공급받는다. 하지만 시범학교인 영산포초등은 지원비 420원을 농특위가 부담하며, 나주농협연합사업단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공급받아 급



식을 하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 학교의 경우 일주일 식단에 사용되는 식재료(된장 등 공산품 포함)는 50~60가지, 이중 나주 산포에서 재배되는 쌀·현미·마늘·양파·피망·쪽파·당근·오이·방울토마토·메론 등 22가지만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쓰고 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급식재료를 100% 친환경농산물 재

료를 바꾸려면 5배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추장·간장·된장·참기름은 국산이기는 하지만 친환경농산물로 만든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4만8천원 하는 고추장 14kg을 친환경 농산물 사용제품으로 바꿀 경우 가격은 20여만원으로,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학교 김경란(41) 영양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가 없으면 100% 친환경농산물 급식은 요원하다"며 "친환경농산물 사용이 지역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나주지역 농산물에 한정해 다양한 과일 등을 제공하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수달 사는 담수호 물고기 떼죽음

### 무안 수포선착장 일대

### 독극물 사용여부 조사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 있는 무안의 한 담수호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당국이 원인 조사가 나섰다.

6일 무안군에 따르면 해제면 산길리 강산마을 수포선착장 일대에 송어와 장

어 등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방치돼 악취를 풍기고 있다.

주민 김모(59)씨는 "이 담수호는 수달이 목격될 만큼 청정지역인데 2~3일 전부터 죽은 물고기들이 하얗게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무안군은 공무원을 동원해 폐사한 물고기 200여kg을 수거했다.

물고기가 폐사한 지역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수로(水路)로, 몇 년 전부터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곳이다.

무안군은 이번 물고기 폐사의 원인이 인근 330여만평에 이르는 간척지 눈에 뿌린 농약의 영향이나 부영양화(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함으로써 영양물질이 많아지는 현상)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 수로에서 민물장어를 잡기 위한 약품처리 등 불법어업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독극물에 의한 폐사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폐사한 어류의 가검물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수질검사에 들어갔다.

또 인근에서 수달의 분변물이 발견되고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어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해 수달 서식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kwangju.co.kr



**연예자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배우 중 35명만 3534명  
문의 (062)366-4220

### '매너없는 응원' 사물놀이패 수난

○-지난 4일 밤 월드컵 축구대표팀과 가나의 평가전에서 가나 국가가 연주될 동안 "대~한민국"을 외치고 '시끄러운' 팬과리 연주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홈페이지 (www.nanjangcultures.com)가 해킹당했다고.

○-이 사물놀이패 홈페이지는 5일부 터 서울지방경찰청의 배너가 4개 떠 있어 클릭하면 자동연결되도록 했는데, 6일부터는 아예 홈페이지가 뜨지 않는데다 비발치는 항의전화로 인해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

○-김씨가 이끄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학생 22명은 독일 월드컵 원정 공연 '비나리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1일 축구대표팀 전지훈련장인 스키텔렌드로 떠났었는데, 각 포털사이트에는 이들을 성토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쇄도.

○-김덕수 사물놀이패 측은 소명자료를 통해 "응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장의 음향사정이 열악해 미처 국가가 연주되는 순서인 것을 몰랐다"고 해명.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상쾌한 아침 편안한 잠

# 폭신평신향 "수맥돌침대"

### 몸이 찌뿌둥 할 때! 미국 F.D.A승인.

**김수환 추기경님 감사제 발동**

1998년 12월 15일,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수맥돌침대를 사용하시며, "이 침대를 사용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잠이 안오는데, 이 침대를 사용하면 몸이 편안하고 잠이 잘 오네요." 하시며, 감사제 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연세대 최고급재질상 수상**

1998년 12월 15일, 연세대학교에서 수맥돌침대를 사용하시며, "이 침대를 사용하면 몸이 편안하고 잠이 잘 오네요." 하시며, 최고급재질상 수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연세대 최고급재질상 수상**

1998년 12월 15일, 연세대학교에서 수맥돌침대를 사용하시며, "이 침대를 사용하면 몸이 편안하고 잠이 잘 오네요." 하시며, 최고급재질상 수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계 대회 5차례 금메달 수상**  
미국, 독일, 스위스, 벨기에 등 국제선상

**온나노 특허 "수맥돌침대"**  
원목가구 친환경 제품

www.ambed.co.kr